

삼겠어요,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길러준 여러분 모두를,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눈물을 바라봐주는 여러분 모두를요.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하늘에, 내가 건너야 할 저 바다에, 내가 숨 쉬는 공기에, 결코 거짓으로 더럽힌 적 없는 이 공기에 대고 맹세하겠어요.”

태양이 아펜니노산맥● 정상의 얼음 바위를 녹여 떨어뜨듯이, 사랑하는 상대의 목소리에 이 청년의 맹렬한 분노는 가라앉았네. 꺾꽂히게 쳐들었던 고개는 수그러들고, 눈에서 눈물이 후드득 흘러내렸지. 폴의 어머니는 그 눈물에 자신의 눈물을 섞으며,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폴을 품에 안아주었어. 라 투르 부인은 닛을 잃고 내게 말했네.

“건달 수가 없어요. 마음이 찢어집니다. 이 불행한 여행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어요. 아저씨, 부디 내 아들을 데려가주세요. 일주일 전부터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제대로 잠을 잔 사람이 없어요.”

나는 폴에게 말했네.

“여보게, 자네 여동생은 남을 곁세. 내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총독과 이야기하도록 하지. 그러니 일단 자네 가족은 쉬게 해주고,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와서 보내시게. 너무 늦었네, 자정이야. 남십자성이 수평선과 수직을 이루

---

● 크세노폰(Xenoph???n, BC430?-355?)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. BC 401년 페르시아 왕의 동생 키로스가 일으킨 전쟁에 참여했으나 키로스가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자 1만 명의 그리스 용병대를 지휘하여 2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다. BC399년 소크라테스가 처형되자, 그 역시 아테네에서 추방당한다.